

사사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닐 때...

김익태 목사 지음



© 2021 제네바 프레스 판권 소유

이 책의 어느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락이 없이는 전자나 기계 방식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복사
재생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면 다음의 주소나 웹사이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resbyterian Publishing Corp.,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entucky 40202-1396

www.ppcbooks.com

편집자 박선규 목사

집필자 김익태 목사(코네티컷한인교회)

감수자 김성택 목사(클리브랜드한인중양장로교회),

강진식 목사(사랑장로교회), 조은성 목사(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

차례

편집자 노트 / 3

활용법 / 4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 / 6

총론 / 8

제 1 과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10
제 2 과	이스라엘의 첫 사사 옷니엘.....	15
제 3 과	왼손잡이 에훗.....	20
제 4 과	여사사 드보라.....	26
제 5 과	우상을 벤 사사 기드온.....	32
제 6 과	교만해진 기드온.....	37
제 7 과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	43
제 8 과	입다: 진실된 기도 vs 잘못된 서원.....	49
제 9 과	삼손: 구별된 나실인.....	54
제 10 과	삼손: 징계를 통해 회복되다.....	60
제 11 과	거짓 신앙, 잘못된 열심.....	65
제 12 과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대에.....	71
제 13 과	총체적 타락.....	77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세상을 밝게 보는 사람과 어둡게 보는 사람, 자기 주도적인 사람과 피동적인 사람, 잘난 척 하며 사는 사람과 겸손한 사람,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과 미래 지향적인 사람, 계획적인 사람과 무계획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기 중심성’이다. 정도의 차이기는 있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성이라는 스펙트럼 선상에서 살아간다. 한쪽 끝에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이 세상의 중심을 자신이라 생각하며 왕자병/공주병에 걸려 사는 자아도취적인 사람이 있다. 국민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하며 사는 것이 뭐가 어떠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는가?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예전에는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우리 눈 앞에서 현실화되어 가고 있지만,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든 곳이 되어가고 있다. 정신 질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울한 세대’와 ‘두머 세대’(Doomer Generation)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본질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이 스스로 왕노릇하며 산다면 어떻게 될까?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했다. 그 결과는 이 교재를 통해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킹덤 라이프: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들을 직시하게 해줌으로써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전할 것이다. 이 교재를 따라 충실히 공부하고 훈련하는 개인 및 교회들이 개인과 이웃과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온 정성을 다해 이 교재를 집필해 주신 코네티컷 한인교회의 김익태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켄터키 루이빌에서
박선규 목사

“킹덤 라이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훈련하기 위한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이다. 이 교재는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 교재라는 말보다는 훈련 교재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



마음 열기

그날에 공부할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일상 속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먹한 분위기를 깨고 서로를 향해 그리고 말씀을 향해 마음이 열리게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말씀 듣기

성경을 천천히 읽고 듣는 가운데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 보는 단계이다.

1. 말씀 듣기는 두 번으로 되어 있다. 처음 읽을 때는 본문을 다 함께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읽기 전에 배경 설명과 도움말을 먼저 읽은 후에 본문을 읽는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책 안에 있는 지시를 따라 읽고 경청한다.
2.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과 인상을 얻는다.



말씀 깨닫기

1. 말씀 깨닫기에 나오는 4개(혹은 3개)의 질문들은 성경 본문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도록 고안된 관찰 질문들이다.
2.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했지만, 간혹 배경설명이나 도움 말을 참조해야 할 때가 있다.
3. 인도자 교재에는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질문들 외에 점점 심화되는 추가 질문들(해석 질문과,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게 하는 질문[거울 질문])들이 나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세 가지 질문들은 인도자가 모임을 나눔 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말씀 따라 살기

1.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나누는 과정이다.
2. 첫 번째 질문은 개인에게, 두 번째 질문은 공동체(교회, 이웃, 나라, 세계)에 적용하는 질문이다.
3. 말씀 깨닫기 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깨달은 것이 있다면 교재에 실린 실천사항 대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라

1. 인도자는 가르치는 자(teacher)라기보다 참가자들이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진자(facilitator)임을 명심하라. 따라서 답안지를 읽어 주거나, 답을 길게 설명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도록 하라.
2. 그날의 모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며, 참가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라.
3. 각 단계별 지침 : 1시간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나누었다. 교회마다 혹은 소그룹마다 성경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인도자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그 날의 내용을 다룰 수 있기 위해 미리 각 단락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인도자용에 나오는 것을 모두 다룰 필요는 없다. 해당 과에 나오는 ‘인도자를 위한 이과의 목적’에 충실하게 인도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15분)

1.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표 : 인도자가 그 날에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오늘의 말씀/찬송/기도
3.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 이 교재의 핵심 가치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훈련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자들에게 말씀 따라 살기에서 실천하기로 결단한 것을 한 주간 꼭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다음 주 모임에 와서 실천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라. 다만,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한 두 사람 정도 나누게 하면 좋을 것이다.
4. 마음 열기 :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한 두 사람 정도만 나누게 해도 괜찮다.
5. 말씀듣기 1, 2 : 첫 번째 읽을 때는 본문을 다 함께 읽도록 하자. 그런 후에는 배경 설명과 도움말을 읽거나 간략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하고, 두 번째 읽을 때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지시에 따라 읽고 경청하게 하라. 말씀 듣기의 목적은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면서 본문의 전체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게 하는 것이다. 마치 하늘에서 숲을 보는 것과 같이 말이다.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



말씀 깨닫기(30분)

1. 관찰 질문에 이어 관찰한 말씀의 의미 혹은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독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해석 질문이 추가되어 있다. 또한, 관찰한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게 함으로써 그 의미가 오늘 나(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독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오늘 나(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거울 질문)이 추가되어 있다.
2. 참가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현재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된다.
3. 인도자는 답을 읽어주어서는 안된다. 인도자가 답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4. 시간적 제한이 있다면 매 질문마다 모든 참가자들이 답하게 할 필요는 없다.



말씀 따라 살기(15분)

1. 첫 번째 질문은 개인 적용이고, 두 번째 질문은 공동체 적용이다.
2. 첫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해 볼지 나누어 봅시다”와 같은 유형의 질문을 하라.
3.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첫 번째 개인 적용을 위한 질문을 건너뛰게 해도 된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질문에 답하고, 그것을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
4. 두 번째 공동체 적용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실천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여러분은 다음에 열거된 사회적 현상들을 보고 어느 시대를 떠올리게 됩니까?

“국가 간의 영토 분쟁,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과 야망, 지역 차별과 그로 인한 긴장과 분쟁, 개념 없고 과도한 폭력 사건들, 모호해진 남녀의 역할, 과도한 개인주의, 아동 학대, 배우자 학대, 납치와 성매매를 통한 여성 학대, 사회 도덕적 혼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위에 열거된 목록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의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 최초의 사사 웃니엘로부터 시작하여 초대 왕 사울이 등극하기 전까지의 대략 340년의 기간을 일컫습니다(삿 2 : 10, 삿 3 : 8-9, 삼상 10 : 1).

사사 시대가 끝난 후 지금까지 3000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인류는 분명 극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사회, 정치, 도덕, 윤리적인 면에서 여전히 사사시대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씁쓸한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시대 성도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책임에 대해서도 자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은 사사기에서 여섯 단계로 반복되는 역사적 순환구조로 설명됩니다:

- (1) 범죄 -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주변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함
- (2) 징계 -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하는 적들의 손에 넘겨짐
- (3) 회개 - 압제의 고통으로 인해 백성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음
- (4) 구원 - 하나님께서 공휟히 여기시고 사사를 세워 구원하여 주심
- (5) 평화 -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백성들이 안정을 누리
- (6) 타락 - 사사가 죽은 뒤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짐

사사기는 각 사건마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암시해 주는 복선과 반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어나 표현으로 명시된 이 복선들은 치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이야기의 결말을 향해 전체 이야기를 역동적으로 끌어갑니다. 이 책에 소개된 사건들에 담겨 있는 암시와 복선을 살펴보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접근하는 즐거움과 도전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는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점차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주인 삼는 가나안화(Canaanite)가 되어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근본 이유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 : 25) 라는 사사기의 주제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이 주제 말씀은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초래하는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찾고,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분만을 섬길 때,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미래의 소망을 제시해 줍니다.

제 1 과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삿 2 : 1-10)

제 2 과 이스라엘의 첫 사사 옷니엘 (삿 3 : 7-11)

제 3 과 왼손잡이 에훗 (삿 3 : 12-30)

제 4 과 여사사 드보라 (삿 4 : 1-24)

제 5 과 우상을 벤 사사 기드온 (삿 6 : 11-32)

제 6 과 교만해진 기드온 (삿 7 : 1-8, 8 : 22-28)

제 7 과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 (삿 9 : 1-25, 50-57)

제 8 과 입다: 진실된 기도 vs 잘못된 서원 (삿 10 : 6-18; 11 : 1-11, 29-35)

제 9 과 삼손: 구별된 나실인 (삿 13 : 1-7; 15 : 9-20)

제10과 삼손: 징계를 통해 회복되다 (삿 16 : 1-31)

제11과 거짓 신앙, 잘못된 열심 (삿 17 : 1-13; 18 : 11-20)

제12과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삿 19 : 1-30)

제13과 총체적 타락 (삿 20 : 1, 8-14, 17-35; 21 : 1-25)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제1과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6-7페이지에 나오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어떤 것 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15분)

오늘의 말씀 : 사사기 2 : 1~10

찬송 : 204장(통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 어려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배경 설명 :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가나안 땅의 입성과 분배 과정 이후, 이스라엘 각 지파는 각자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

Kingdom
Life



는 단계에 있었다. 사사기 1장은 각 지파별로 이루어진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 언뜻 보면 각 지파들이 성공적으로 정복 전쟁을 치른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불안정한 정복이었다. 불안정한 정복은 하나님께 대한 불안정한 순종을 의미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안의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우상과 제단들을 제거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다. 남겨진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울무와 가시가 되었고, 평화와 안식이 아닌 압제와 혼란의 역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사기의 내용 중 서론 부분에 속하는 본문 말씀은 사사 시대의 배경을 밝혀주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 두신 이유와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이 쇠퇴하게 된 원인을 보여준다.

도움말 :

- 언약(1, 히 : 베리트) : ‘끊는다’는 뜻이다. 본문에서의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의미하고(창 15 : 7, 17 : 8, 출 6 : 8),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버리는 것을 의미했다(신 7 : 2-5 참조).
- 땅의 주민(2) : 좁게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일곱 족속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을 의미하고, 넓게는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반대하는 압제와 불의한 체제를 상징한다.
- 보김(5, 히 : 보킴) :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며, 여호와와 사자가 책망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던 사실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2 : 4-5). 이러한 ‘울음’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지며, 눈물의 장소 보김은 고통과 눈물로 써 내려간 사사기의 전체 분위기를 반영한다.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다시 천천히 본문을 읽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책망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경청합시다.



말씀 깨닫기(30분)

1. 여호와와 사자가 보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킨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2절)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는 것이다(신 7 : 1-2; 12 : 1-3 참조).

- ▶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때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는 것 외에, 그 땅의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신 7:1-5 참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 7:4 참조)**

가나안 땅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창 15:13-16 참조).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살려두어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이 제사 드리는 제단들을 헐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유혹의 뿌리를 처음부터 잘라내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 ▶ **유혹의 뿌리를 처음부터 잘라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음란물, 돈(물질), 불신앙(의심)과 같은 유혹들을 자주 마주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유혹들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러한 유혹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다. 유혹의 뿌리를 잘라낸다는 것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누어 보자.

2.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3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심으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가나안 족속의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참고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라고 설명해 주셨다(20-22절 참조).

- ▶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말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들이 될 것을 의미한다(민 33:55; 수 23:13 참조).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된다는 말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덫이 되어 그들을 움짱달짝 못하게 붙들어 망하게 할 것이라는 말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의미이다.

- ▶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고난을 당했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항상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분이시다(히 12 : 6-11 참조).

3.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해 경고와 견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4-5절)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를 높여 운 후에, 그곳(보김)에서 하나님께 제사(예배)를 드렸다.

▶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자신들의 죄를 비로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 후에 하나님께 제사(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보여준다.

▶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가장 최근의 경험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회개는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이다. 자연스럽게 나누어 보면서 서로에게 은혜와 격려와 도전을 주는 시간을 가져보자.

4. 여호수아와 및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은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6-10절)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1세대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전해주지 않았다.

▶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신앙 교육을 했는지 혹은 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께서서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할지를 차근차근 알려 주셨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신 6 : 4-5) 이웃을 사랑할지(레 19 : 17-18),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할지(출 33 : 7-11),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하여 어떻게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 주셨다(민 6 : 23-27). 성경에서 가르쳐 준 이러한 신앙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말씀 따라 살기(15분)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1. **당신 주변에서 당신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것(혹은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한 주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러한 유혹을 극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유혹들이 범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 유혹을 끊어내는 삶을 결단해 보자(예 :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 보내는 시간 줄이기, 남을 험담하고 불평하는 일 삼가기; 게으름/잠자는 시간 줄이기, 과도한 욕심이나 걱정을 내려놓기, 분노와 미움의 울무 끊기 등).

2.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우리 소그룹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고 실천해 봅시다.**

(예 :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그들을 격려하기, 감사 노트 보내기).